안경환의 '법과 문화'

"세월호 끝났다!" 아, 무정한 세월이여!

답답하다 못해 참담한 심경이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물경 다섯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당초 정부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던 종교집단의 수장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인도 밝히지 못한 채 시신을 땅에 묻었고 몇몇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을 뿐이다.

진도 체육관과 서울 광화문 광장, 경기도 안산 분향소 주변은 아직도 초췌한 얼굴에 망연한 표정의 탈진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언론도 철수한지 오래다.

우리는 한 해에도 수십, 수백 건, 크고 작은 인명 사고를 겪게 된다. 누구 하나 귀중하지 않은 생명이 있을까만 '참사'로 부르는 사고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피해자 숫자 문제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참혹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는 핵심적 기준은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단순히 수많은 사고의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의 전형으로 보느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자를 단지 불운한 시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잠재적인 피해자인 모든 국민의 전형으로 보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적폐'가 원인이라고 했다. '관피아', 안전불감증, 기업의 비리, 정경유착 등.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겉치레만 번듯한 건설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얼굴이라는 뜻일게다.

그런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는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당초부터 허사였던 것처럼 비친다. 어느 틈엔가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때워 넘기는' 식의 수동적 방어책으로 전환한 듯하니 말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는 가운데 야당과 유족이 연합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수많은 국민들은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올 뿐이다.

며칠 전, 이 정부의 탄생에 관련된 의혹을 다룬 판결이 내려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개입은 있었으나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 대해 한 동료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비판의 글을 썼다.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외부에 대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글은 법원의 '내부' 통신망에 실린 것이다. 그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관련하여 여·야, 유가족 3자 사이에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세월호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이 가중되자 물실호기, 최대한의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단호하게 유가족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존의 사법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다짐했다. 실로 자신감이 넘치는 행보다.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여당 단독으로 운영할 기미마저 보인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교사들의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을 금지하고 노란색 추모리본을 달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많은 국민이 '세월호 피로증'에 걸린 것도 사실이다. 내용이야 어쨌든 한시바삐 매듭짓고 넘어갔으면 하는 체념 비슷한 바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서야 어찌 구조적 적폐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실로 답답하다.

하지만 어찌하랴, 무심을 넘어 비정한 세월인 것을. 그러니 성에 차지 않더라도 '적폐'의 작은 한 매듭이라도 풀고 가야할 것만 같다. 치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모두에게 지혜로운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社說

정부, 수입쌀 고율 관세 끝까지 지켜라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정부가 18일 시장 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WTO와의 협상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쌀 관세화는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국내외 쌀의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해 수입량을 조절하는 조치다.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국내산보다 더 비싸져 농가의 피해가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가 확정한 관세율은 그동안 논의되던 300~50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수입 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체결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쌀을 제외시키로 했다. 고율 관세를 책정해도 FTA 등 추진 과정에서 이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513% 관세 부과시 국내 쌀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WTO 검증 과정에서 이를 관철해내고 향후 무역협상에서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고정직불금 조기 인상, 변동직불금제 유지·보완 등 쌀 산업발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

쌀은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이 걸린 문제다. 전남도는 곡물자급률 목표를 50%로 상향, 쌀 목표가격 결정에 물가인상률 반영 등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왔지만 실행에 옮겨진 것은 없다. 정부는 무엇보다 쌀 관세화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농가 보호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초등생 학교폭력 느는데 대책은 없다니

전국에서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는 아예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148개 교에서 38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학교 당 평균 2.5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 전국 평균 0.60건, 전남의 0.56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광주지역 초등학교 중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폭행을 당한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위(Wee) 클래스' 설치율도 20.1%로 전국 평균치(26.5%)에 크게 밑돌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고교에 치우치면서 초등학교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중·고교에서 줄어든 반면 초등학교에선 10% 가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교에서의 폭력은 중·고교처럼 직접적인 위해나 협박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집단 따돌림의 '왕따'가 많고 손찌검도 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문상담교사가 없고 '위 클래스'도 부족하다 보니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담임 선생에게 폭력사실을 알리게 되면 보복이 우려되고, 맞벌이가 대세인 상황에서 부모에게조차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중·고교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위 클래스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학부모들로 하여금 상담을 맡도록 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담임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겉사람보다 속사람으로

김 성 덕
화정교회 담임목사

얼마 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에서 젊은 캐디를 성추행해서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 시대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의 품행 수준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과 속에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서울 성동구치소를 방문해서 수 백 명의 제소자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소자들의 얼굴 모습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때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시험도 잘 준비해야 하고 면접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을 통해서 심사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몸을 만들고, 피부관리샵에 다니면서 얼굴을 가꾸고 메이크업을 하며, 지방출신들은 사투리 교정 학원에 다니면서 표준말을 익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모델 학원 등에서 걸음걸이까지 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두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사람'을 꾸미는데 투자하는 노력보다 직장 안에서 일을 잘 감당하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갖추는 속사람 꾸미기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와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속사람'을 바르게 채우지 못하고 '겉사람'만 포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명품이 인기가 있다 보니 명품의 가짜라고 하는 짝퉁이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릴 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명품을 가지신 분은 비에 맞을 까봐 명품을 품에 안고 몸으로 비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짝퉁을 가지신 분은 내 머리가 비에 맞을까봐 가방을 머리 위에 쓴다고 합니다.

TV에서 한번은 명품 가방과 똑같은 짝퉁 가방을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정말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잘라보니, 명품은 속이 가득 차 있는데, 짝퉁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자르고 속을 뒤집어 보니, 바느질이 명품은 이중 박음으로 고르고 튼튼하게 되어 있었지만, 짝퉁은 엉성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짝퉁은 명품에 비해서 원단의 색상이나 품질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느 것이 명품이고, 어느 것이 짝퉁인지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안 가던 것이, 속을 들여다보니 확연히 구분이 된 것입니다.

겉보다는 속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겉보다는 속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알고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 사람 겉보기와는 다르게 알고 보니 진국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진국'이란 말은 '거짓이 없고 참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국이라는 말은 결국 '속사람'이 좋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갈수록 늙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꿈과 사랑과 정직과 참된 인격과 친절과 용서의 마음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 고

바람아 불어다오

범 진 선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

"전남 서해안 앞바다에 바람아 불어다오"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처럼 들린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찬바람이야 말로 겨울을 나야 할 서민에게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풍력발전 시장규모는 연평균 12~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장은 최근 중국, 인도 등 아시아와 북미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풍력발전 규모면에서도 점차 Multi-MW급으로 대형화 되고 육상에서 해상풍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 독일,덴마크 등 풍력선진국들은 7MW급 이상에 대한 실증시험을 진행하면서 풍력발전기를 대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 기업들이 대용량 풍력발전기 생산을 위한 실증연구와 대규모 설비공장 설립 등 생산체제를 빠르게 구축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풍력발전 기업들이 가장 탐을 내는 지역은 어디일까? 해답은 바로 전남에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풍력발전을 위한 잠재자원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영광, 신안, 진도, 해남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황 조사에 따르면 서남해안은 전국에서 풍황이 가장 양호하다.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입지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균풍속은 초당 6~8m로 풍력자원이 아주 풍부하다. 육지보다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고, 강한 바람이 상시적으로 불어 발전효율 또한 매우 높다. 해상풍력은 초당 6.5~7m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 서해안은 6400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과 수심이 5~20m로 낮은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큰 강점이다. 대단위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지형적으로 아주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전남도에서는 민선 6기 신임지사 취임 이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서해안의 전남 영광과 전북 부안 앞바다를 중심으로 2010년 2.5GW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여 현재 10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조성중이다. 전남도에서는 풍력관련 부품·소재 제조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5GW 프로젝트'를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이는 영광에서 신안, 진도에 이르는 해역과 내륙을 따라 5GW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기술개발과 실증·인증을 담당할 '풍력 테스트베드'가 영광 백수해안에 2014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내 풍력발전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풍력발전 선진국과 발전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한 기술개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해상풍력 산업을 전남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우선 영광, 신안 등 바다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까지 끌어오기 위한 전력선이 없다. 염분이 있는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내구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대 민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기 위한 전력계통 연계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발전사업자에게 가중치를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 경험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 적용해 보는 사전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발전사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과 시스템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부에서도 해상풍력시장 조기 가속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풍황과 수심, 전력계통 연계 조건이 좋고 태풍과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전남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국가 해상풍력 육성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전남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메카로 발돋움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풍력산업에 있기에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남에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자연의 선물임을 잊지 말자. 바람아! 바람아! 풍요로운 전남건설을 위해 무진장 불어다오.

無等鼓

20년 가까이 된 영화지만 '브레이브 하트'(Brave heart·1995)의 기억은 강렬하다. 특히 감독과 주연을 맡은 멜 깁슨이 푸른 분장을 하고 전투에 나서는 장면은 잊혀지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그가 마지막에 외치는 대사 '자유!(Freedom!)'는 뇌리에 박혀 있다. 억압 받던 약소 민족 다윗이 못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 관객 입장에서는 통쾌함도 느껴진다. 웅장한 음악은 또 얼마나 감동으로 몰아치던지.

스코틀랜드

'브레이브 하트'는 스코틀랜드 독립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1297년 스털링다리 전투가 소재다. 복잡한 스코틀랜드 역사를 알리 없는 한국의 한 영화 관객이 이 정도로 느꼈다면, 당사자들의 심장은 터져 나갔을지도 모른다.

'브레이브 하트'는 1996년 아카데미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로부터는 역사왜곡 등을 이유로 '최악의 전기영화'라는 혹평을 받았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연합국이다. 특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과 켈트족으로 뿌리부터 다르다. 월레스의 심장을 물려받은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독자적인 국가와 화폐, 정부 의회까지 갖추고 오랫동안 독립을 외쳐왔다.

스코틀랜드 출신 배우 숀 코너리는 "독립 전에는 고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외쳤고 최근에는 영국 일간지에 "새 나라를 건립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인 예술은 없다"고 썼다. 반면 잉글랜드 출신이지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해리포터'를 탄생시킨 조엔 K 롤링은 독립에 반대하며 16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18일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찬반 국민투표가 시작됐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4%포인트 높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박빙이다. 세대, 성별, 이민자 내 출신 지역 등에 따라 갈등이 깊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역사, 경제, 정치 문제가 얽힌 결정을 놓고 얕은 지식을 가진 기자가 훈수 둘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누가 승리하든 포용의 정치를 펼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만다는 것.

의견이 다른 이들을 아우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오늘 오후 운명의 여신은 과연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까.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